

Colour & Form

《색채와 형태, 10인의 슬로바키아 작가들》

1987년, 서울 올림픽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약 9미터 높이의 거대한 화강암 조각상은 바로 슬로바키아의 유명한 조각가인 조제프 안코빅(Jozef Jankovič)의 작품이었다. 또한 그의 조각작품인 <세바스찬 Sebastian>(1987, 화강암과 청동)은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Kore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에 소장된 바 있다. 본 전시는 이처럼 지속해 이어져 온 한국과 슬로바키아 문화 교류의 유산을 잇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본 전시는 1980년대 슬로바키아 미술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젊은 작가 10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들은 초기 작품부터 놀라울 만큼 활기 넘치는 표현력과 강력한 생동감을 보여주었다. 회화 작가들은 다양한 범위의 주제 선택, 폭넓은 색감의 사용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구조적, 표현적 회화의 길을 개척했고, 조각가들은 재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조각의 새 지평을 열어나갔다. 그들의 작품은 표현력과 서정성, 시적 요소와 극적 요소의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었으며, 미지의 경계와 신비로움을 담고 있다. 이렇듯 실재하는 형태에서 기호, 혹은 원형으로 응축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를 찾기 위한 열망에서 비롯된 개념미술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초 변화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이뤄진 예술적 시도들은 각기 다르게 전개되지만, 오늘날 그들은 당시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틀림없다. 그들은 슬로바키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수선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들의 작품들은 다양한 공공 및 사적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슬로바키아 시각예술가협회(Association of Visual Artists in Slovakia)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사실적인 묘사, 양식화된 묘사, 시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표현적이고 극적인 추상적 묘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또한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역사와 문학을 참조하거나, 인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동시대의 주제를 탐구하기도 하고, 현대인들의 가장 내밀한 감정의 복잡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스베토자르 일랍스키(Svetozár Ilavský)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 상태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여기에 숨겨진 연관성을 찾는 다재다능하고 창조적인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다층적인 비유, 인용, 그리고 비유 속에 숨겨진 미래에 대한 신비한 시각을 담고 있다. 뛰어난 인물 화가이자 이야기꾼인 페테 폴라크(Peter Pollág)는 풍부한 비유, 그리고 은유와 상징의 독특한 힘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에 영원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반 파블레(Ivan Pavle)는 역사적 시대와 고대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는 역사적 상황을 좌우했던 이야기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법칙의 모호하고도 뚜렷한 진실을 밝혀낸다. 알렉세이 보이타체크(Alexej Vojtášek)의 작품에서는 상징성과 풍부한 색채 구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사실적인 묘사로부터 원형과 기호,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 안 흘라바테(Ján Hlavatý)는 서예적 요소, 글자, 다른 기호, 인물의 윤곽을 그의 작품에 도입한다. 슈테판 폴락(Štefan Polák)은 색채가 지닌 표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의 작품은 시적 상상력과 미술적 사실주의 원리를 혼합한 것으로, 앵포르멜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오토 바초리크(Oto Bachorík)의 조각은 서정적이지만, 동시에 표현적이고 강력하다. 오토 바초리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동글고 원형적인 선은 신비와 미지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고르 모스니(Igor Mosný)의 나무 조각상에 새겨진 상징과 은유의 언어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천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역사적 발전을 암호화한다. 유라지 추텍(Juraj Čutek)은 나무와 레디메이드(ready-made, 기성품) 금속 오브제를 결합한 조각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역사와 문학에서 영감을 얻고, 위대한 인물들을 묘사하며, 우리 지구의 황폐화에 대응한다. 그의 작품은 많은 연상과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킨다. 밀란 루카치(Milan Lukáč)는 또한 청동이나 용접된 철을 아상블라주(assemblage, 일상적인 대상을 한 화면에 조합하여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기법)하여 완성된 조각 작품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역동적으로 부유하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 혹은 동물의 모습은 작품이 지닌 힘을 상기시킨다.

슬로바키아의 동시대 시각 예술은 작가들의 개별적인 예술적 시도, 양식,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성취로 대표되며, 그 가운데 특이나 젊은 작가들의 예술적 기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젊은 작가들의 성취는 물론 슬로바키아 미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이 정치적 제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던 혁신적인 시도에 기인하며, 그들의 작품에 주목할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대의 예술, 그들의 작품 속 활기찬 색채와 조각의 진정한 형태, 특히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그들 작품의 강력한 메시지가 한국 관람객에게 닿아, 슬로바키아의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더욱 가깝게 느끼기를 바란다.

2023년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수립되고,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한국이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슬로바키아 시각예술가 협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슬로바키아 시각예술가 협회를 대표하여, 특별한 기회를 주신 햇빛담요재단과 아트코너H 갤러리, 주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대사관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는 바이다. 본 전시를 통해 한국의 모든 관람객이 뜻깊은 예술적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마리아 호르바토바(Mária Horváthová)
큐레이터

*앵포르멜적: 즉흥적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전후 유럽의 추상미술을 의미, 이 맥락에서는 표현주의적이고 서정적인 추상예술을 의미한다.

Svetozár Ilavský



The Birth of Mr. Hen. 2007. Hydronalium, bronze, textile. 95 x 175 x 60 cm

Milan Lukáč

밀란 루카치

1962년 9월 29일 보이니체 출생
1981-1987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안 쿠리히, 라디슬라브 스노펙 사사)
1985-1986 파리 보자르(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in Paris, 장 카도 사사)

브라티슬라바에서 거주하는 작가는 크기가 작은 조각에서부터 거대한 기념비와 같은 조각이나 메달(원형의 금속 소품), 드로잉 혹은 회화 작품 등 회화와 조각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념비, 추모비와 같은 중대한 의미가 담긴 조각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작가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의 조교수이자 슬로바키아 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산하에 있는 '시각예술과 멀티미디어'과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1985년 파리 보자르의 '젊은 조각가 상'을 수상했으며, 1988년 '마틴 벤카 상', 1990년 '폴 루이 바이어(Paul-Louis Weiller, 프랑스의 기업가) 상', 2023년에는 '크리스탈 워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스베토자르 일랍스키

1958년 11월 11일 브라티슬라바 출생
1979-1985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작가는 슬로바키아의 소도시 치페르(Cífer)에서 거주하며, 등대 극장(Cinema Maják)을 개조하여 자신의 거대한 스튜디오로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동시대 건축, 무대 디자인, 그리고 전자 음향과 관련된 다매체 작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아우르는 작품을 보여준다. 동시대 슬로바키아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1985년에는 '마틴 벤카(Martin Benka, 1888-1971 슬로바키아 민족 화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에는 '하노버 엑스포 Expo in Hannover'에 슬로바키아 국가관과 2015년 '밀라노 엑스포 Expo in Milan'에서 전시한 바가 있다.



The Queen. 2022. Bronze and brass, 99 x 55 x 30 cm

Colour & Form

Ten Slovak Artists

ART CORNER H Gallery, 95 Eulji-ro, Jung-gu, Seoul
23rd August – 26th September 2023

Exhibition curator: Mária Horváthová
Text: Mária Horváthová
Translation: Beata Havelská
Photographs: archives of artists
Graphic design: Jarmila Zdráhalová
Print: FO ART s. r. o., Bratislava
Published by: FO ART s. r. o., Bratislava for Society of Slovak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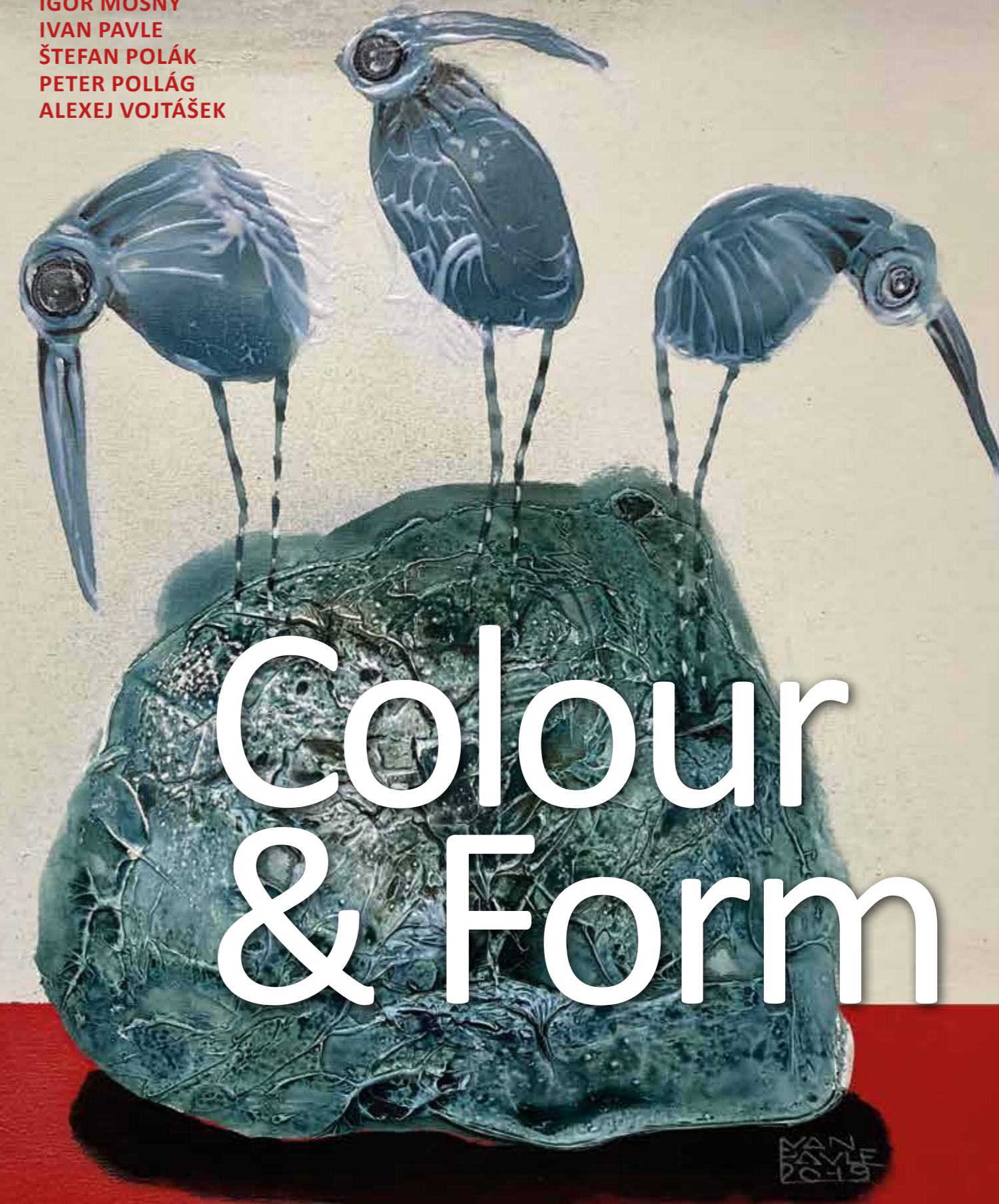
The Exhibition is held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Slovak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Ten Slovak Artists

ART CORNER H Gallery, 95 Eulji-ro, Jung-gu, Seoul
23rd August – 26th September 2023

OTO BACHORÍK
JURAJ ČUTEK
JÁN HLAVATÝ
SVETOZÁR ILAVSKÝ
MILAN LUKÁČ
IGOR MOSNÝ
IVAN PAVLE
ŠTEFAN POLÁK
PETER POLLÁG
ALEXEJ VOJTÁŠEK



Colour & Form

Colour & Form

친애하는 여러분,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 외교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께!

이 글을 통해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한국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여러분께 가장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전시는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한국 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기념하는 이정표이자, 예술과 국가 외교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마련되었습니다.

예술은 국경,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유대관계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 관계 강화에 있어서 예술이 지닌 강력한 통합의 힘을 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30년 동안, 슬로바키아와 한국은 우정,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수교를 통해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 있는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 나온 놀라운 성과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색채와 형태 : 10인의 슬로바키아 작가들》은 과거 슬로바키아가 이룩한 풍부한 예술적 유산과 더불어 동시대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슬로바키아 예술가들의 재능을 부각하는 기회이자, 한국과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슬로바키아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미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기림과 동시에, 국가 수교 30주년 기념일이 지나는 심오한 의미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지속해 온 30년간의 외교 관계는 문화적 대화와 예술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양국 간의 사상, 가치, 경험의 교류를 촉진해 왔습니다.

본 전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해주신 작가님들과 주최자님들,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슬로바키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술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본 행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미술 전시회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 교류를 심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촉진하고, 분열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육성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예술의 힘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 쿠데르바비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Along the Way. From the cycle EKO. 2018
Acrylic and oil on canvas. 100 x 80 cm

Ivan Pavle

이반 파블레

1955년 3월 8일 갈란타 출생
1975-1981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데시데르 카스틸리오네, 이반 바이클로펜 사사)

이반 파블레는 작가의 세대 중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브라티슬라바에 거주하며 회화, 드로잉, 조각과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카뉴쉬르메르(Cagnes-sur-Mer)에서 열린 21세기 국제 회화 심포지엄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크리스탈 워 어워드'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Sorrow. 2020. Polychromed wood and bronze. 87 x 53 x 30 cm

Štefan Polák

슈테판 폴락

1952년 12월 18일 파르티잔스케 출생
1971-1977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라디슬라브 체미치, 페르디난드 가이도스 사사)
1982 파리 보자르 (썬우 키, P. 그레니에 사사)
1979-1986 브라티슬라바 순수예술 학교 회화과에서 강의

작가는 브라티슬라바에 거주하며, 시내 중심에서 멀지 않은 야노브체(Jánovce) 지역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 그는 회화와 더불어 건식 프레스코(secco fresco), 혹은 돌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거나 판넬화(wood painting)와 같이 현대 건축에 사용되는 방식의 작품 또한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작가는 조각에 몰두하면서, 1997년, 1999년, 그리고 2000년에 걸쳐 파리에 위치한 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th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활동했다. 특별히 2017년에는 '슬로바키아 예술가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Sorry. 2008. Oil on canvas. 130 x 100 cm

Oto Bachorík

오토 바초리크

1959년 3월 26일 브라티슬라바 출생
1974-1978 브라티슬라바 응용미술 학교 (루드빅 코르코스 사사)
1978-1984 브라티슬라바 순수예술 학교 (라디슬라브 스노펙 사사)

작가는 현재 브라티슬라바의 지역 중 하나인 데빈(Devin)에 거주하고 있으며, 크기가 다양한 조각 작품과 드로잉, 회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가는 많은 조각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활약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슬로바키아 예술가협회상'을 수상, 2020년에는 '크리스탈 워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다.



A Couple. 2022. Acrylic and sand. 150 x 150 cm

Ján Hlavatý

얀 흘라바티

1955년 8월 8일 즐라테 모라브체 출생
1975-1981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얀 젤리브스키 사사)

그는 브라티슬라바에 거주하며, 회화, 드로잉, 그리고 건축 장식에 포함될 수 있는 모자이크와 *납화법을 사용한 거대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또한 그는 지난 20년을 통틀어 가장 대표적이고 선구자적인 추상 회화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납화법: 안료를 벌꿀 혹은 송진에 녹이고 불에 달군 인두로 화면에 색을 입히는 기법.

Peter Pollág

페테 폴락크

1958년 2월 19일 레보차 출생
1977-1983 브라티슬라바 순수예술 학교
(프란치제 스토클라스 사사)
1980-1988 페루시아, 파리, 프라하, 마드리드의 순수예술 학교에서 수학

페테 폴락크는 동시대 슬로바키아 회화 작가들 중 가장 선구적인 인물 중 하나이다. 작가는 브라티슬라바에 거주하고 있으며 회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레이션, 스테인드글라스, 유리물 돌로 된 모자이크 작업, 그리고 최근에는 기념비적인 크기의 조각까지 다채로운 매체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수 많은 회화 심포지엄,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프리미오 알라 폰타 아시시 the Premio Alla Punta Assisi'(1981), '마틴 벤카상'(1983), '국제 코리다 피에데스트레상 Corida Piedestre Internationale'(1986, 파리), '크리스탈 워 어워드'(2008), '슬로바키아 예술가협회상'(2022), '루도비 풀라상 Ľudovít Fulla Prize'(2022) 등을 수상하거나, '제 8회 코시체 국제 회화 비엔날레'(1986)에 참여한 바 있다.



Setting Free the Princess. Detail. 2007. Oil on canvas. 150 x 150 cm

Alexej Vojtášek

알렉세이 보이타셰크

1952년 12월 13일 로우드니체 나트 라베헤출생 - 2023년 5월 30일 브라티슬라바 사망
1973-1980 브라티슬라바 순수예술 학교 (알빈 브루노프스키 사사)
1985-1990 브라티슬라바 순수 예술 & 디자인 학교 회화과에서 강의
1994-1995 코메니우스 대학교 교육학부 광고홍보학과에서 강의

작가는 브라티슬라바에 거주하였으며, 회화와 드로잉, 판화, 책 삽화, 오브제, 건축 장식을 위한 거대한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선보였다. 1985년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드로잉 트리엔날레'에서 3등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는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성취를 인정받아 '크리스탈 워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Resonance I. 2018. Mixed media on canvas. 160 x 120 cm

Juraj Čutek

유라이 추텍

1957년 2월 28일 질리나 출생
1972-1976 브라티슬라바 응용미술 학교
(루드빅 코르코스 사사)
1977-1983 프라하 응용미술 학교
(조세프 말레호프스키, 조세프 스보보다 사사)

작가는 브라티슬라바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조각, 드로잉, 회화, 그리고 건축과 실내 디자인에 관련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다수의 조각 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여하고 개최하기도 했다. 2017년, 작가가 제작한 루치아 포포바(Lucia Popova, 슬로바키아의 오페라 가수)의 흉상이 비엔나 오페라 극장에서 공개되었으며 2018년에는 '크리스탈 워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Salvage Our Oceans. 2022. Walnut and brass. 80 x 99 x 22 cm